

2024년 3월 10일 통권 제24권 10호

전도서(Ecclesiastes) 12장13-14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와 성도”

A Church that shines like the Stars



2024표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Walk by the Holy Spirit

(갈5:16)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찬송

Anthem

성도여 다 함께 (찬29 장)

기도

Prayer

서상철 목사 (참빛)

찬양

Praise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호사밧 찬양대

교회소식

Announcement

광고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전도서(Ecclesiastes) 12장13-14절

설교

Sermon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임용우 목사

찬양

Hymn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445 장)

축도

Benediction

임용우 목사

주일예배

오전 09:00 예배

오전 10:45 예배

오전 10:45 Elementary Worship

오전 10:45 Pre/K Worship

오전 10:45 Youth Worship

오전 09:15 EMWorship 1

오전 10:45 EMWorship 2

*현장 예배 오시는 분은 본당입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은 예배 전후 시간에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워싱턴성광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소식

1. 성광이야기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 구입문의: 이영순 전도사 703.732.0114

2. 50기 새가족반 성경공부 수료만찬

• 일정: 3월10일(주일) 1시30분
• 장소: 친교실에서 만찬후 채플로 이동합니다

3. 부활절 침례 신청

• 일정: 3월31일(주일) 10시45분 예배 중
• 신청: 3월13일(수)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4. 백합화 강단 헌화 신청

• 본당 게시판을 통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문의: 서순갑 여선교회장)

5. 성광비전센터 건축 기금마련 골프대회

• 일정: 4월13일(토) Stonewall golf club (문의: 김용현 장로)
• 신청: 4월7일까지(참가비 \$200)

출석 및 헌금 통계

*현장출석

1부	137	EM	130	청년	30
2부	261	Children	94	Youth	72
수요예배	118	토요일예배	152	헌금 총액	\$102,564. ¹⁵

비전센터 건축 헌금

*1구좌(\$5,000)

약정 목표 금액	600 구좌	현재 약정액	\$4,244,018. ⁷² 849 구좌	건축 헌금액	\$2,026,170. ⁰² (현재)
----------	--------	--------	--------------------------------------	--------	---------------------------------

교회 셔틀 안내

일반 차량 운행 팀장: 윤석상 안수집사(571-353-5752) 학교 셔틀 운행 팀장: 김용현 장로(714-883-6980)

선교현황 (파송27개국 96명 / 협력 28개국 59명 / 12개 협력단체)

목장	목자	국가	선교사	모임	목장	목자	국가	선교사	모임
힐링	이태수	대만	전야브라함	3/17	생물	진수연	루마니아	박창수	3/10
은혜	홍덕기	일본	배찬식	3/13	비전	문희란	탄자니아	조강식	3/17
하늘	강신호	일본	유정훈	3/17	한나	이정임	루마니아	김유정	3/10
회복	구재현	네팔	박재면	3/17	겨자씨	김용현	케냐	최동훈	3/23
소망	윤태용	캄보디아	정중찬	3/31	영광	이은환	우간다	이기진	3/17
동행	장영철	캄보디아	장진기	3/16	코카브	신웅식	르완다	이상훈	3/17
방주	문신정	대만	김은우	3/17	쥬빌리	이종근	가나	구승희	3/16
빅토리	하수영	캄보디아	이성민	3/16	실로암	곽은식	콜롬비아	김혜정	3/12
포도나무	강훈규	미국	윤광진	3/17	중보	이상원	에콰도르	이철희	3/16
베네스다	문종광	인도네시아	김형건	3/10	인크라이스트	Jae윤	파라과이	김정훈	3/21
축복	윤세원	네팔	문광진	3/17	바디매오	김범석	페루	김중원	3/17
사인	안진원	인도네시아	함춘환	3/17	새생명	안병주	멕시코	민주식	3/24
라이프	나대형	미얀마	이경중	3/10	오션	윤석상	브라질	박지웅	3/16
태먼	송현철	말라위	김백만	3/17	실만한물가	임강호	도미니카	이철영	3/17
임마누엘	박태욱	탄자니아	최창식	3/17	이레	함지하	브라질	우은성	3/23
참빛	서상철	세네갈	최근식	3/17	등대	안용환	에콰도르	이천우	3/17
순종	임상기	탄자니아	윤봉석	3/10	미라클	김승환	볼리비아	황보민	3/10
복음	최영훈	말라위	박세우	3/16	좋은	김영진	에콰도르	장다슬	3/23
마라나타	위주호	남수단	이종호	3/10	오병이어	오택성	브라질	고현욱	3/16
기쁨	도유진	르완다	박준범	3/17	예은	서평강	파나마	고대권	3/17
이새	김현태	우간다	이상철	3/15	청년1	김나영	요르단	이상만	3/10
만나	박광모	인도	김용대	3/16	청년2	이윤형	르완다	최황덕	3/10
부활	홍현철	인도	정정환	3/17	청년3	백종선	루마니아	박정민	3/10
별열	양일도	인도네시아	정영명	3/17	EM1	Jeanie	Cameroon	Mary	주(격주)
지혜	오승원	캄보디아	김영익	3/16	EM2	Jonathan L	Ecuador	Ted	주(격주)
말알	이영희	카자흐스탄	송장현	3/12	EM3	Tom	Indonesia	Jonathan	금(격주)
아름다운	변성희	카자흐스탄	김철진	3/17	EM4	Eric	Senegal	Victorien	월(격주)
백합화	한정금	태국	최승리	3/19	EM5	Stanley	China	James	주(격주)
열매	이정은	몽골	김준태	3/10	EM6	Rachel	Cameroon	Mary	주(격주)
사론	희경Mendez	키르기스스탄	유상길	3/11	EM7	Eunice	Taiwan	Chris	주(격주)
주항기	이영미	태국	허기동	3/24	EM8	Paul	Bolivia	Jeremiah	토(격주)
평화	홍덕기	이스라엘	강태윤	3/10	EM9	Jin Nam	Taiwan	Chris	토(격주)
별빛	신중우	이스라엘	강태윤	3/23	CM1	ChingFang	China	최봉매	토(격주)
와보라	허길선	러시아	김도수	3/10	CM2	ZhangBin	China	박일송	토(격주)

공동기도제목

- 2024년 성도들이 교회 표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와 같이 매사를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 성광비전센터 건축이 좋은 시공업체로 결정되어 공사가 시작 되게 하소서
- "우리는 동역자입니다"(두란노 출판사) 출간되었는데 믿음의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고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책이 되게 하소서

볼리비아 황보 민/재키 선교사



협력단체

IMB, 한국침례해외선교부, 기아대책, SEED선교회, CG선교회, JAMA, KIMNET 세계선교동역네트워크, 하이패밀리,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밀알선교회, 평화나눔공동체

선교지 소식

볼리비아 황보 민/재키 선교사 오늘은 좀 슬픈 날이군요.평소에 저와 아요래 형제들이 존경하던, 나이드신 "아신도"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어느곳 처럼 아요래 땅에도 죽는 일이 허다하지만 이번에는 내 마음이 좀 다르군요.교회에선 말이 많이 없으셨던 그였지만 평소에 교회를 무척이도 사랑하시고 야기셨던 분이셨습니다.뺨집없이 주일마다 예배를 알리는 교회종을 치셨고, 예배에 앞서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 그의 아들과 함께 교회안을 깨끗이 청소하시던 참으로 신실하셨던 분. 어려해 전 어느 주일날 멀리 있는 다른 마을에 창립기념 행사가 있었을 때 우리 마을 사람들도 참석하고자 모두 떠나버리고 마을의 텅 빈 교회엔 단 둘만이 남아, 나는 강대상에 서서 그리고 그는 내 앞에 홀로 앉아 예배를 드렸던, 내 기억에 평생 잊지 못할 분이셨습니다.지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오늘 새벽에 결국 눈을 감으시더니 오후 예는 이미 땅에 묻혀버리고 마는군요.그렇게 그는 어느 아요래인들처럼 저곳으로 급히 훌쩍 떠나가버린, 세상을 너무나도 간결하게 마무리 지어버리는듯 합니다. 정말 그의 장례식처럼 너무나도 간결한...막 파헤친 흙이 아직 습기를 머금은채 신선해 보이기까지 하건만, 그가 묻 히어 덮인 한줌의 흙무더기 옆에는 가족으로선 오직 한 명의 아들과 몇 명의 교회 형제자매들뿐. 많이 오지 못함은 오랜 세월 그들이 가 저온 죽은 영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구멍이를 파느라 삼자루를 친 일꾼들이 숫자를 더해주는군요.초대 받은 사람도 없고, 차려진 음식도 없고, 잘 짜여진 예식도 없고, 멋있게 장식된 꽃들도 없고, 몸담은 상자 하나만이 땅바닥에 멋쩍게 자리잡은...우리가 그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찬송과 하나의 기도와 그리고그의 평안을 비는 하나의 성경구절뿐..."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14:1,2)

